이사야 조직신학 II, 예수님

(이사야 32:1~20)

1.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사야 조직신학 II,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이사야 조직신학 II, 예수님'

세계적인 관광명소에는 뷰포인트(viewpoint)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은 그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을 잘 볼 수 있는 지점에 전망대를 만든 것이 뷰포인트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최고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의 맥락에서 보자면 믿음은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보는 행위가 앞서 말씀드린 뷰포인트의 개념과 이어집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뷰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많은 신학자들도 말하는 자연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 개인의 아버지로 느끼고,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실감하기 위해서는 자연 계시로는 부족합니다. 오직 마음의 뷰포인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셨던 분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로 부르셨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면모를 볼 수 있는 뷰포인트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는 내용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왕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예언을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를 두려워하여 애굽에 손을 내미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앗수르의 군대가 자멸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두고 1절의 왕을 히스기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뒤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애굽을 의지한 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칭하는 한 왕은 히스기야나 다가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왕의 신하들 즉 하나님의 측근에 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맥락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손대시는 것이 공의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손대시는 것을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절에서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선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한글성경에서는 '그'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앞서 나온 왕이나 방백들을 가리키는 어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단순히 한 사람(a man)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쉬('îš, אִישׁ)입니다.
2절을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또 한 사람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나 방백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볼게 될 이후의 부분에서는 성령님도 등장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관련해 나오는 표현들이 흥미롭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조직신학을 상기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사역의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러하신 하나

님을 향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로써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보는 것은 담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담기 위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남 유다를 예로 들자면 앗수르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앗수르를 담자 두려움이 생겨났고, 두려움에 쫓겨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31장 6절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세상을 담는 행동이 하나님을 심히 거역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앗수르 대신에 재정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재정문제에 압박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심히 거역하는 행동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치 못함을 두고 29장 13절에서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사야가 생각하는 믿음의 형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의의 통치는 앞선 말씀에서 젊은 사자와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쥔 모습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나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애초에 하나님이 움켜쥐신 과제이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구할 처지도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본다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선민들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명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환경들이 광풍이나 폭우처럼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옵니다. 또 삶이 마른 땅과 곤비한 땅처럼 여겨집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대관령을 지날 때에 보면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안개 때문에 10m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비가 거세게 올 때에는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럴 때에는 공포감이 생깁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데 차를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폭포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렇게 삶의 환경이 폭우가 쏟아지듯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또 삶은 어떤 의미에서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 마른 땅에 있을 때에 마음이 바라보는 유일한 대상은 물입니다. 저의 아들이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20분 동안 걸어오면서 마음으로 계속 라면만 바라보았어요."라고 했습니다. 라면을 먹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환경이 광풍처럼 폭우처럼 밀고 들어오며, 광야에서 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밀고 들어오고, 곤비한 땅이 되어서 탈진하고 지치게 합니다. 탈진하고 지칠 때는 세상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끌어안고 씨름을 하는 중입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문제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섭할 수 없는 일들 중에서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중에서 타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설령 남들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정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최고의 일이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한 사람'으로써 예수님이 제시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이라는 광풍과 폭우를 피하게 됩니다. 또 마른 땅에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곤비한 땅에서 하나님을 그늘 삼아 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중동 땅의 그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게 하는 뷰포인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세상에 시달리더라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음을 보내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꽉 끌어안고 광풍과 폭우 같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으면 마음에 빛이 비춰옵니다.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육체의 연관성 영역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이미 다 생각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3절에서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우리에게 자녀문제가 폭우처럼 몰아칠 수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광풍처럼 다가옵니다. 승진과 월급만을 갈구하게 하는 직장생활은 마른 땅과 같습니다. 삶은 나를 지치게 하는 곤비한 땅처럼 여겨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떠나지 않으면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방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또 한 사람'으로 제시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할 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산헤드린공회원들이 이들을 협박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끌어안고 있었기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헤드린공회원들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은 폭우와 광풍 같은 세상의 공격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마음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처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돌로 치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끌어안은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상상도 못할 광경이 보이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그 현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 또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장에서 다윗은 입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움켜쥐고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던 구약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과 성

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세상을 담았던 마음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폭우와 광풍처럼 밀고 들어온 세상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지 않고, 이 상태가 상번제의 어린양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선민이 아니었고 선민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라고 상번제의 의미를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라는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가는 부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재산과 열 명의 자녀와 건강과 사회적 명성과 친구들과 아내까지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끝에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서는 재산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나 아내 혹은 사회적 명성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차지하던 세상의 가치들을 치우시자 비로소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분의 심방 부탁을 받아서 찾아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사업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정작 사업이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 사업이 망한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문제의식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치는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마음에서는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형통해도 실패해도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못 보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마음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못 본 채 비틀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뷰포인트이십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마음으로 쇄도해 들어오려 하는 광풍과 폭우 같은 세상 앞에서 예수님만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내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뷰포인트로 확보하는 삶을 진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